

## 유아의 놀이성, 적응, 그리고 문제 행동과의 관계성 연구

Children's Playfulness in Relation to Pre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안효진(Hyo Jin Ahn)<sup>1)</sup>

임연진(Youn Jin Lim)<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layfulness, the degree of preschool adjustment and behavior problems. The subjects were 118 children from 3 child care centers and 5 kindergartens in Kyungbuk province. Children's playfulness was measured through the 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 and the level of preschool adjustment was measured through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 The modified version of Kim's (2000)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 (PBQ), created by Behar and Stringfield (1974) was used to measure the acceptability of children's behaviors. The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hrough the use of SPSS 12,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exists a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the children's playfulness, the degree of preschool adjustment, and the acceptability of behavior problems. Second, the degree of preschool adjustment appears to be a reliable predictor of children's playfulness.

**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유치원 기관의 적응(preschool adjustment), 문제 행동(behavior problems).

### I. 서 론

놀이에 대한 일부 비판 이론가들은 놀이가 소수집단이나 저소득층 유아에게 가치롭지 않다고 주장하지만(이진희 · 손원경 · 안효진 · 유연옥

역, 2006), 아직도 대다수의 유아교육 학자들은 놀이를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놀이는 그 자체가 지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아가 놀이를 통해 주변 세계를 알아가며, 스스로 의미 있는 경험을 구성해나가며, 독

<sup>1)</sup>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sup>2)</sup> 동서울대학 아동보육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yo Jin Ah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cheon University, Dowha 2-dong, Incheon City 402-750, Korea  
Email : ahj0505@yahoo.com

립성을 발달시키고, 온전하게 발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유아는 자신의 놀이 경험이 다르고, 이들이 선호하는 놀이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각 개인 간 유아 놀이 행동은 차이가 나타난다(Rogers, 1988; Rubim Fein & Vanderberg, 1983). 이러한 놀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을 놀이성이라 한다.

놀이성은 유아의 놀이성향으로, 개인차와 관련된 심리적인 개념(Rogers, 1988)이다. 유아의 놀이성향은 주어진 과제를 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Aquilar, 1985).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 정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Lieberman, 1965). 예를 들어, 신체적 자발성은 유아가 신체 전체나 일부분을 활발히 움직이는 정도를 의미하고, 사회적 자발성은 친구의 접근에 잘 반응하고, 협동적으로 놀이를 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인지적 자발성은 놀이를 할 때 유아가 주도적이고, 다양한 사고를 하면서 놀잇감을 유통성 있게 사용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놀이 중에 얼마나 기쁨이나 즐거움, 열정을 보이며,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즐거움의 표현, 그리고 놀이 중에 유아가 다른 유아들과 농담을 즐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며 익살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를 표현하는가를 의미하는 유머 감각이 포함된다.

이러한 놀이성은 유아들의 교육기관 내에서의 적응과 관련되어 연구가 되어졌다(김영희, 1998; 단현국, 2004). 유아들은 가정을 떠나 새로운 유아교육 기관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처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유아들은 부모와 격리된 상황 속에서 일정 시간 동안 교사, 친구들과 집단생활을 해야 하며, 또 집단

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켜야하는 상황 속에서 기쁨, 즐거움을 맛보기도 하지만, 또한 불안감, 긴장감을 경험한다. 이때, 유아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생활을 하는가에 따라 유아들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 유아들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기관에서의 생활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타인들과 신뢰감이 형성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유아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순조롭게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여 생활을 할 수 있다(Coplan, 2000).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발달은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을 향상시켜, 학문적, 행동적 적응감을 높여줄 수 있다. 새로운 집단 속에서 유아들은 사회적 존재로 집단의 규칙과 기대에 따른다는 동시에 환경과 조화롭게 행동을 해 나가고, 변화시켜나갈 수 있다.

반면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조절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에서 문제행동이란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가 연령에 기초한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동(황혜신·황혜정, 2001)으로, 사회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행동들이다. 유아들의 문제 행동은 과잉행동, 산만, 또래 유아나 교사에 대한 적대 행위나 회피행동 같은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사나 또래 유아와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여, 분노나 불안감으로 표출되어 위축된 학교생활로 나타난다(Pianta, 1997). 또한 교실 내에서 정서적 지지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또래가 없음으로서 유치원에서 부적응행동을 보이거나(Ladd, 1990; Thompson, 2002), 과잉행동, 불안행동, 또래보다 미숙한 행동을 보이는 유아인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워진다(김선희·김경연, 1999). 원만한 사회적 관계의 형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이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 할 뿐 만 아니라 발달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예측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어떠한 변인이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유아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교사나 일반 부모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룬다. 또한 놀이와 관련되어서 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놀이 행동과 일반 유아들과의 놀이 비교를 나타내는 연구들이다. 예를 들어, 과잉행동 유아는 다른 정상적인 아동과 보다 많은 놀잇감을 이용하지만, 한 가지 놀잇감을 갖고 놀이하는 지속시간이 짧고 놀이 주제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Coplan, Gavinski-Monlia, Lanace-Seguin, & Wichmann, 2001). 뿐만 아니라 놀이 행동과 사회, 정서적 문제 행동과의 관계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적 놀이유형에 속하는 극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유아들의 놀이를 살펴보면, 혼자-감각 놀이 또는 혼자-극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유아들은 또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해 사회적인 부적응자로 판단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Rubin, 1982).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과연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놀이의 형태가 다른 일반 유아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놀이성도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된다. 김민정과 엄정애(2005)는 그들의 연구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혼자 놀이 행동만이 문제 유아라고 단정 짓기보다 오히려 말없는 행동이 불안 행동이나 과행동 및 산만 행동과 연관이 있으며, 이들은 혼자 놀이를 하는 유아가 적응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이나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 선호하는 놀

이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자 놀이를 한다고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자유선택 놀이 시간에 말없는 행동을 자주하는 유아들은 불안 행동과 과행동 및 산만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혼자 놀이를 한다고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과 긍정적인 측면인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력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룬 문제 행동에 관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동시에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놀이성에 관련된 연구들은 유아가 교육기관에서 친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감, 자아강도, 그리고 유아의 기관 적응 정도 등에 따라 교육기관에 적응하는 수준이 달라지며, 이 같은 유치원 적응 과정에서 유아의 놀이 행동이 중요하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기관에 적응 정도는 유아의 놀이형태나 사회적 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김영희, 1995; 허윤선, 2006). 그러나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주로 놀이 형태나 사회적 관계로 유아의 놀이성과는 많이 다루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문제 행동과 유아의 놀이성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기존의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유아의 놀이성과 문제 행동을 살폈으며(권수진, 2007), 대부분의 경우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놀이의 형태(김민정·엄정애, 2005)의 차이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 과연 놀이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놀이성, 기관적응력, 그리고 문제 행동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관계를 탐색하고, 두 상반되는 변인들의

놀이성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보이는 유아의 적응정도나 문제행동의 정도에 따라 나타나는 유아들의 놀이성을 이해하고, 놀이의 교육적 적용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로 삼았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적응력, 문제 행동, 놀이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적응력, 문제 행동이 놀이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 지역의 3개 어린이집과 5개 유치원에 근무하는 10명의 교사가 참여를 하여, 자신의 반 개별 유아들의 놀이성, 교육기관의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을 살펴보았다. 참여한 총 유아의 수는 118명이며, 이들의 구성은 남아가

78명(67.1%)이고 여아가 40명(32.9%)으로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총 만 4세 64명, 만 5세 54명이었다. 참여 유아교육기관의 특성을 보면, 3개 병설 유치원, 2개의 사립 유치원, 3개의 어린이집, 모두 8개의 교육기관이었다.

### 2. 측정도구

#### 1) 놀이성 척도

Barnett(1990, 1991)의 Children's Playfulness Scale(CPS)를 김미숙(2001)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Lieberman(1965)이 제시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의 5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는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93였고, 하위척도별 Cronbach  $\alpha$ 는 신체적 자발성 .85, 사회적 자발성 .84, 인지적 자발성 .89, 즐거움의 표현 .89, 유머 감각 .80이었다. 놀이성 척도의 하

<표 1> 놀이성 척도의 하위요인과 하위요인의 특성

하위 요인	문항 수	하위요인의 특성
신체적 자발성	4	놀이 중에 신체기관의 협응이 잘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도
사회적 자발성	5	놀이 중에 친구의 접근에 잘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놀이감을 나누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정도
인지적 자발성	4	놀이를 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이감을 융통성있게 사용하는지의 정도
즐거움의 표현	5	놀이 중에 기쁨이나 즐거움, 열정을 보이는지,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정도
유머 감각	5	놀이 중에 다른 유아들과 농담을 즐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웃기도 하며 익살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정도

<표 2>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척도의 하위요인과 그 특성

하위 요인	문항 수	특 성
친사회적 행동	5	친구를 도와주고 협동하며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는 행동 의미
긍정적 정서	4	유치원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의미
또래 유능감	6	또래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이 하는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러 잘 어울려 지내는 것 의미
자아 강도	6	자신감이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 하지 않는 인내심을 보이는 것 의미
기관에서의 생활적응	7	유치원의 하루일과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하며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하게 요청하고 협조하는 것 의미

위요인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 척도

Jewsuwan, Luster 그리고 Kostelink(1993)가 개발하고 김지은(2003)이 번안한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는 친사회적 행동, 유치원 환경에서의 긍정적 정서, 또래 유능감, 자아강도, 기관에서의 생활적응의 5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다.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가 부여되는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α는 .93였고, 하위척도별 Cronbach α는 친사회적 행동은 .92, 긍정적 정서

는 .89, 또래 유능감은 .89, 자아강도는 .91, 그리고 기관에서의 생활적응은 .93이었다. 유아의 교육기관 적응척도의 하위요인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3) 유아의 문제 행동 척도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har과 Stringfield(1974)가 제작한 만 3-6세 유아를 위한 PBQ(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김지숙(2000)이 번안한 것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30문항으로 적대-공격행동, 걱정-불안행동, 과잉-산만행동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척도는 각 영역에 대해 유아의 특정 행동이나 감정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나타나는가를 교사가 평가하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까

<표 3> 유아의 문제행동 척도의 하위요인과 그 특성

하위 요인	문항 수	특 성
적대-공격행동	4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또래와 잘 싸우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
걱정-불안행동	5	두려움을 나타내거나 잘 우며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는 행동을 의미
과잉-산만행동	4	불복종적이며, 비협조적인 행동과 산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

지의 점수가 부여되는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95였고, 하위척도별 Cronbach  $\alpha$ 는 적대-공격은 .92, 걱정-불안은 .81, 과잉행동-산만은 .87이었다.

### 3.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담임 선생님에게 유아의 놀이 상황과 일상적 행동 관찰에 기초하여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문제 행동, 그리고 유아의 기관적응에 대한 평정을 부탁하였다. 자신이 가르치는 유아의 놀이성, 교육기관 적응, 문제 행동에 대한 질문지는 135명의 유아자료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완전한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18명의 유아의 자료만 선택하였다.

자료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 윈도우용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계산하였고, 우선, 놀이성, 교육기관 적응력, 문제 행동 간의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적응, 문제행동의 놀이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놀이성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나머지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놀이성, 교육기관 적응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교육기관 적응, 문제행동, 그리고 놀이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

로 놀이성은 교육기관 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행동은 과잉-산만 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성의 하위 영역인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은 모든 교육기관 적응의 하위변인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자발성은 교육기관 적응의 하위 변인 중 기관에서의 생활적응( $r=.44, p<.01$ ), 자아강도( $r=.40, p<.01$ ), 교육기관 적응 총점( $r=.35, p<.01$ ), 긍정적정서( $r=.32, p<.01$ )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 감각은 교육기관 적응의 하위 변인 중 또래유능감( $r=.68, p<.01$ ), 자아강도( $r=.59, p<.01$ ), 교육기관 적응 총점( $r=.58, p<.01$ ), 긍정적정서( $r=.57, p<.01$ ), 친사회적행동( $r=.42, p<.01$ )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놀이성과 유아의 문제 행동은 하위 변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놀이성의 하위 영역인 신체적 자발성은 과잉-산만행동( $r=.49, p<.01$ ), 문제행동 총점( $r=.37, p<.01$ ), 적대-공격행동( $r=.31, p<.01$ )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면에 놀이성의 하위 변인인 즐거움의 표현에서는 걱정-불안행동( $r=-.31, p<.01$ ), 적대-공격( $r=-.27, p<.01$ ), 문제행동 총점( $r=-.21, p<.01$ ), 그리고 과잉-산만행동( $r=-.02, p<.01$ )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 2.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교육기관적응과 문제행동의 상대적 영향력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적응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놀이성의 5개 하위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교육기관적응의 5개 하위 요인과

<표 4> 놀이성, 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특성과의 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42**	1														
3	.44**	.56**	1													
4	.54**	.48**	.61**	1												
5	.43**	.51**	.54**	.50**	1											
6	.74**	.77**	.79**	.81**	.75**	1										
7	.31**	.01	-.01	-.27**	.10	.02	1									
8	.10	.01	-.04	-.31**	-.07*	-.08	.52**	1								
9	.49**	.16	.21*	-.02*	.25**	.27**	.81**	.49**	1							
10	.37**	.08	.07	-.21*	.13	.10	-.40**	-.40**	-.22**	1						
11	.15	.62**	.28**	.36**	.42**	.24*	-.45**	-.29**	-.30**	-.41**	1					
12	.32**	.67**	.37**	.57**	.57**	.23*	-.27**	-.30**	-.10	-.25**	-.75**	1				
13	.16	.55**	.37**	.39**	.05	.68**	-.50**	-.39**	-.38**	-.49**	.57**	.66**	1			
14	.40**	.70**	.39**	.49**	.59**	.32**	-.33**	-.35**	-.09	-.26**	.40**	.56**	.54**	1		
15	.44**	.63**	.65**	.59**	.68**	.41**	-.03	-.26**	.07	-.06	.68**	.67**	.67**	.57**	1	
16	.35**	.80**	.61**	.61**	.58*	.72**	-.40**	-.48**	-.22**	-.38**	.40**	.68**	.67**	.57**	.50**	1

1. 신체적자발성, 2. 사회적자발성, 3.인지적자발성, 4. 즐거움의 표현, 5. 유머감각, 6. 놀이성 총점  
 7. 적대-공격행동, 8. 걱정-불안행동, 9.과잉행동-산만행동, 10. 문제행동 총점  
 11. 친사회적행동, 12. 긍정적정서, 13. 또래유능감, 14. 자아강도, 15. 기관에서의 생활, 16. 교육기관적응 총점  
 \*\* $p < .01$  \* $p < .05$

문제행동의 3개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변인들에 대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놀이성 전체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관에서의 생활, 자아강도, 과잉-산만행동, 그리고 친사회적

<표 5>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상수	기반에서의 생활	자아강도	과잉-산만행동	친사회적행동
놀이성전체	38.44	2.12	.94	1.09	.70
		.68	.23	.24	.28
		.68	.73	.78	.79
1	29.01	1.60	.83	1.30	1.35
		.24	.23	.25	.22
		.73	.79	.79	.79
2	13.51	1.46	1.08	1.09	1.08
		.47	.21	.24	.24
		.78	.78	.78	.78
3	5.63	1.35	.83	1.30	1.35
		.22	.23	.25	.22
		.79	.79	.79	.79

&lt;표 6&gt;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Model		B	Beta	R	F	R <sup>2</sup>	ΔR <sup>2</sup>
단계							
신체적 자발성	1	상수 과잉-산만행동	7.58 .52	.49	.49	36.83***	.24
	2	상수 과잉-산만행동 자아강도	-.66 .57 .36	1.67 .08 .06	.66	45.46***	.44 .20
	3	상수 과잉-산만행동 자아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1.90 .54 .26 .19	1.67 .07 .07 .07	.69	35.03***	.48 .04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 전체에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 요인인 기관에서의 생활( $F=100.26, p<.001$ )이 46%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아강도( $F=65.36, p<.001$ )가 첨가됨으로서 7%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인 과잉-산만행동( $F=58.26, p<.001$ )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7%가 증가되었으며, 교육기관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증가되어, 총 61%의 설명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났다. 과잉-산만행동, 자아강도, 그리고 기관에서의 생활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인 과잉-산만행동( $F=36.83, p<.001$ )이 24%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자아강도( $F=45.46, p<.001$ )가 첨가됨으로서 20%의 설명

력이 증가되었다. 또한 기관에서의 생활( $F=35.03, p<.001$ )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4%가 증가되어 총 48%의 설명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났다. 자아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 요인인 자아강도( $F=111.90, p<.001$ )가 49%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관에서의 생활( $F=80.11, p<.001$ )이 첨가됨으로서 9%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 $F=66.63, p<.001$ )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6%가 증가되어 총 64%의 설명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변인인 기관에서의 생활과 문제 행동의



<표 7> 사회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사회적 자발성	1	상수	4.65					
		자아강도	.57	.70	.70	111.90***	.49	
	2	상수	2.01					
		자아강도	.41	.50	.76	80.11***	.58	.09
		기관에서의 생활	.30	.36				
	3	상수	.02					
		자아강도	.29	.36				
		기관에서의 생활	.27	.32	.80	66.63***	.64	.06
		친사회적행동	.28	.29				

하위변인인 걱정-불안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 요인인 기관에서의 생활( $F=84.67, p<.001$ )이 4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걱정-불안행동( $F=48.38, p<.001$ )이 첨가됨으로서 3%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총 45%의 설명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즐거움의 표현에 대한 관련 변인(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 기관에서의 생활, 과잉-산만행동, 그리고 적대-불안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움 표현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 요인인 긍정적 정서( $F=56.28, p<.001$ )가 33%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

관에서의 생활( $F=38.74, p<.001$ )이 첨가됨으로서 7%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과잉-산만행동( $F=31.70, p<.001$ )가 추가되어 설명력이 6%가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적대-불안행동( $F=25.48, p<.001$ )이 1%가 추가되어 총 47%의 설명을 나타냈다.

다음은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유머감각에 대한 관련 변인(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의 하위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그 결과가 나타났다. 기관에서의 생활, 과잉-산만행동,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이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머 감각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적응의 하위 요인인 기관에서의 생활( $F=23.08, p<.001$ )이 17%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잉-산만행동( $F=15.70, p<.001$ )이 첨가됨으로서 7%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과잉-산만행

<표 8>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단계								
인지적 자발성	1	상수	3.89					
		기관에서의 생활	.46	.65	.65	84.67***	.42	
	2	상수	.28					
		기관에서의 생활	.49	.70	.68	48.38***	.45	.03
		걱정-불안	.27	.19				

<표 9> 즐거움의 표현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즐거움 표현	상수	F	상수		F	상수	
			정서	생활		정서	생활
1	상수	8.42					
	긍정적 정서	.72	.57	.57	56.28***	.33	
2	상수	6.32					
	긍정적 정서	.48	.11	.63	38.74***	.40	.07
	기관에서의 생활	.29	.08				
3	상수	2.56					
	긍정적 정서	.54	.11	.67	31.70***	.46	.06
	기관에서의 생활	.25	.07				
4	상수	4.23					
	긍정적 정서	.47	.11				
	기관에서의 생활	.26	.07	.69	25.48***	.47	.01
	과잉-산만행동	.48	.13				
	적대-불안행동	-.29	.14				

동( $F=31.70, p<.001$ )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5%가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행동( $F=12.20, p<.001$ )이 3%가 추가되어 총 24%의 설명을 나타냈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 교육기관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고, 교육기관의 적응과 문제 행동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매체인 놀이 및 놀이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의 실제에서 유아 놀이를 통합하는데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 교육기관적응,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놀이성과 교육기관적응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놀이성이 높은 유아가 대체적으로 교육기관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놀이성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허윤선

<표 10> 유머감각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

유머감각	상수	F	상수		F	상수	
			정서	생활		정서	생활
1	상수	8.42					
	기관에서의 생활	.72	.57	.41	23.08***	.17	
2	상수	6.32					
	기관에서의 생활	.48	.11	.46	15.70***	.21	.04
	과잉-산만행동	.29	.08				
3	상수	2.56					
	기관에서의 생활	.54	.11	.49	12.20***	.24	.03
	과잉-산만행동	.25	.07				
	친사회적행동	.26	.08				

(2006)의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발성과 교육기관 적응은 다른 하위 변인들 보다 더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지만,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신체적 자발성은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신체적인 자발성이 높아 활동적인 경우 보다 사회적 자발성이 높아 친구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잘 하는 경우에 교육기관에 적응을 더 잘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자발적인 유아는 또래와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이희영·현문학, 2005). 결국 놀이성과 교육기관의 적응에 관한 본 연구는 놀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높은 유아일수록 교육기관의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가며, 능동적으로 생활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놀이를 더 놀이답게 하는 유아들이 교육기관에서 하는 경험을 더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어려워 보이는 과제나 환경 속에서도 쉽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 능력을 보인다(단현국, 2004)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유아의 유치원 적응과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적대-공격적 행동, 과잉 행동-산만 행동, 그리고 걱정-불안을 보이는 유아의 행동은 낮은 정도의 유치원 적응 상태를 보였다. 불안 행동이 적은 유아일수록, 과잉 행동이 많은 유아일수록, 그리고 비행 행동이 적은 유아 일수록 유아가 유치원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의 과잉행동이나 불안행동, 위축행동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관련 있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밝힌 연구(박성수, 1984; 옥경희·김미혜·천희영, 2002)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 요인과 전반적인 유아의 문

제 행동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즐거움을 표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적대-공격적 행동과 과잉 행동-산만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놀이를 하면서 신체적 자발성을 보이지만, 반면에 즐거움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냈다. 걱정-불안 행동을 보이는 유아 역시 놀이를 하면서 즐거움이나 유머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과잉행동-산만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인지적인 자발성이나 신체적 자발성, 유머 감각을 표현하지만,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잉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다른 정상적인 아동과 보다 많은 놀이감에 관심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놀이하는 시간이 짧고, 놀이 주제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는 연구(Coplan, Gavinski-Monlia, Lanace-Seguin, & Wichmann, 2001)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잉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스스로가 다양한 놀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만, 놀이를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대-공격적인 유아나 걱정-불안을 보이는 유아의 놀이의 형태는 신체적인 자발성은 나타나지 않고, 단순히 놀이의 즐거움이나 유머를 표현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관적응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우선, 유아의 놀이성 전체에 대한 관련된 변인요소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을 때, 교육기관 적응의 하위변인인 기관에서의 생활, 자아강도, 친사회적 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하위변인인 과잉-산만행동이 유의하게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었다. 즉, 기관에서의 생활, 자아강도, 과잉-산만행동,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놀이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놀이성 전체 점수에 대해 가장 영향력을 주는 큰 변인은 기관에서의 생활로, 유아가 하루 일과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활동을 선택 할 때,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놀이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보이는 결과이다(교육부, 2000). 또한 생활경험에서 놀이를 통해 얼마나 유아가 능동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놀이성이 달라진다고 밝힌 선행 연구 본 연구 결과는 연관되어 있다(허운선, 2006; Coplan, Wichmann, & Lagace-Seguin, 2001). 결국, 놀이성은 교사가 유아가 기관에서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생활을 할 때 가장 잘 일어날 수 있으며,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유아들이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 놀이성의 하위 요인에 따라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각각 다르다. 구체적으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신체적 자발성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았을 때, 유아의 과잉-산만행동, 자아강도, 그리고 기관에서의 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즉, 과잉-산만행동, 자아강도, 그리고 기관에서의 생활의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자발성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과잉-산만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날수록,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의 활동성이 높으면, 부모나 교사들이 유아가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인식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이희선, 1994).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주도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들인 경우에도 신체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동시에 미숙한 신체 발달로 인해 나타난 유아의 행동을 유아의 문제 행동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자발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것, 자아강도, 기관에서의 생활, 그리고 친사회적행동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 유아의 사회적 자발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행동을 보이며, 주도성을 갖고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와 놀이를 잘하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높은 자아개념이나 자아 강도를 갖는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신민섭, 1984; 한기환, 1999).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닌 유아는 교육기관의 생활에 더 적응을 잘하고, 자신의 내적 통제에 의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김영숙(1997)의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아의 정서 상태가 안정적이고 자아상태가 높은 유아의 경우 놀이성이 높다는 김영희(1996)의 연구 결과나 유아가 실패를 자주 경험하는 경우 자아개념이 낮아지고, 자아개념이 낮은 경우는 탐색 놀이를 적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교육기관적응의 하위변인인 기관에서의 생활과 문제 행동의 하위 변인인 걱정-불안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에서 생활에 잘 적응하는 유아가 놀이감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역할의 놀이를 하는 인지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허운선, 2006; Coplan, Wichmann, & Lagace-Seguin, 2001). 즉, 유아가 궁금한 것들을 탐색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실천해보고자 하는 인지적인 자발성이 편안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높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잘 울고, 두려

움이 많은 걱정 불안이 많은 문제 행동을 나타내는 유아는 부정적인 표현을 하지만, 인지적인 자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걱정-불안 행동을 보이는 유아의 인지적 자발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점을 부각시킨다.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즐거움의 표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긍정적 정서, 기관에서의 생활, 과잉-산만행동, 그리고 적대-불안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놀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감정, 기쁨, 즐거움이나 성취감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경우에 더 높은 긍정적 정서 반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즐거움을 표현하는 유아는 놀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하는 본질적인 가치와 기쁨을 부여하는 긍정적 정서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놀이성과 정서지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연결할 수 있다. 한미현(2002)의 연구에서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정서 지능이 유아의 놀이성과 연관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황윤세(2008)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자신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정서의 인식과 표현이 놀이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놀이성의 하위 요인인 유머감각에 대한 관련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기관에서의 생활, 과잉-산만 행동,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놀이를 하면서 친구와 농담하는 것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유아가 기관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을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머란 웃음을 자아내는 지적인 놀이의 한 형태로(McGhee, 1979),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기관에서의 생활에 편안하게 적응할수록 더 유머를 잘 한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머는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더 쉽게 유지되기 때문에(Kostelnik et al. 2005),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편안하게 놀이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놀이성과 교육기관에서의 적응, 그리고 문제행동의 상관 관계 및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와 논의를 통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발견되었던 한계점과 연계하여 후속 연구로 다룰 점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놀이성을 단순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놀이성향이나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단순하게 유아들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아동들의 행동을 동일한 시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아동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놀이 행동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과 유아들의 이들의 구체적인 문제 행동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차별화를 시켜 이들의 놀이를 봐야 한다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 및 그 하위 변인과 교육기관적응 및 문제행동에 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힌 결과, 놀이성은 각각 다른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본 연구에서 유아의 놀이성이 허윤선(2006)의 연구에서처럼 놀이성이 문제행동보다는 교육기관의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가 스스로 환경을 다루고, 자기 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갖도록 유도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한 경험이 교육기관의 생활 속에서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서, 유아가 미래에 대한 삶에 도전을 하고 성장을 해 나면서 적응력을 획득해 나간도록 해야 한다(Boyer, 1997).

셋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관련시켜 유아의 문제행동 및 유치원 적응에 대한 변인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놀이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간의 인과 관계와 영향력 정도를 살펴볼 필요성

이 있고, 이러한 결과가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의 평정에만 기초하여 측정을 하였는데, 양적인 평가 뿐 만 아니라 유아의 놀이상황을 직접 관찰하여 이들의 놀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는 질적인 평가를 함께 시도함으로써 유아들의 놀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의 성에 있어서 여아에 비해 남아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경북지역에서 표집 되었다는 점에 기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다양한 지역에서 연구대상을 표집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본 연구 결과의 일부분은 선행연구들과 일관되지 않은 것이었고, 놀이성에 대한 선행연구도 부족하며 이들 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놀이성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추후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참 고 문 헌

권수진(2007). 어머니의 부모역할, 유아의 놀이성,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근희(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엄정애(2005). 유아의 혼자놀이와 기질 및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5), 1-14.

김수영(2000). 유아의 또래수용도,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형태와의 관계. **유아교육학회**, 20(3), 47-65.

김 연·한태숙·정인희·박연경·황혜정·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분석. **열린유아육**, 4(11), 229-250.

김 연·황혜정(2008). 유아기질 및 심리적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아동교육연구**, 28(3), 23-49.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 간의 인간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17(1), 156-165.

김영희(1998). 유아의 놀이성 및 대인 문제 해결력과 적응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24-36.

김지은(2003). 5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자숙(2000). 유아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서적 적응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혜(2006). 유아의 놀이성이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단현국(2004). **유아의 유치원 적응의 함수 풀이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편).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자료개발 및 활용방안 모색(pp.3-13). 충북 청원 : 한국교원대학교 출판부.

박성수(1984). **아동의 부적응 행동수정**.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박화윤·마지순·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송민영(1998).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 변인간의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송진숙·권희경(2003).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학회**, 8(3), 207~225

신민섭(1984). 자아강도의 강약과 장의존성-독립성과의 관계에서 Rorschach 반응상의 1차과정적 사고 표현 및 통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2002). 유아의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관계와 유치원적응. **미래유아교육학회지**, 9(3) 163-180.
- 옥경희 · 김미혜 · 천희영(2002). 조절력과 부정적 정서 및 문제 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61-68.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실(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희 · 고인숙 · 김미정(2009). 유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회지**, 13(1) 163-183.
- 이중강(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 · 손원경 · 안효진 · 유연옥 역(2006). **놀이 발달 유아교육**. 서울 : 아카데미프레스.
- 이희영 · 현문학(2005). 신체활동 놀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17(1), 26-34.
- 이희선(1994).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및 유치원 적응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15(2), 117-128.
- 임성혜 · 차현화 · 윤현숙(2003).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역할놀이와 신체놀이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7(2), 181-205.
- 장영숙 ·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 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의 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조희숙 · 서수인(1998).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 지각과 어머니 지각 간의 관계 연구. **유아교육논총**, 8(2), 165-181.
- 최명선 · 김지혜(2006).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4), 103-116.
- 최주연(2001). 극놀이 유형과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기환(1999). 아동기의 자아강도와 성역할 지각 및 방어기제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윤세(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 및 교사-유아 관계성 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11-228.
- 황윤세 · 이해원(2005). 유아의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6), 1-15.
- 황윤세 · 최미숙(2007). 기질과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형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2(2), 49-66.
- 황혜신 · 황혜정(2001). 유아의 인지능력이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3), 25-34.
- Aguilar, T. E. (1985). Social and environmental barriers to playfulness. In J. L. Frost & S. Sunderlin (Eds.), *When children play*(pp. 73-76). Wheaton :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1991). The playful child : Measurement of a disposition to play. *Play & Culture*, 4, 51-74.
- Coie, J. D., Dodge, K. A., Co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plan, R. J., Gavinski-Monlia, M., Lanace-Seguin, D. G., & Wichmann, C. (2001). When girls versus boys play alone : Nonsocial play and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37(4), 464-474.
- Erikson, E. H. (1997). *Toys and Reasons*. NewYork : Norton.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E. M.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pp.103-196). NY : Wiley.
- Jewsuwan, R., Luster, & Kostelink, M. (1993). The relation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temperament and children's adjustment to 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8*, 233-51.
- Kupersmidt, J. B., & Coie, J. D. (1990).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La Greca, A. M. (1981). Peer acceptance : The correspondence between children's sociometric scores and teachers' ratings of peer interac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9*, 167-178.
- Lieberman, J. N. (1965). Playfulness and divergent thinking : An investigation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kindergarten level.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07*, 219-224.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Y : Academic Press.
- Parker, J. G., & Asher, S. R. (198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 Psychology, 29*, 611-621.
- Pianta, R. C. (1997). Adult-child relationship processes and early school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8*, 11-26.
- Ross, A. O. (1980).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ren : A behavioral approach to therap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 McGraw-Hill.
- Rogers, C. S. (1988). Measuring playfulness;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uth western society of research in human development. New Orleans.
- LA. Rubim, K. H., Fein, G. & Vanderberg, B. (1983). *Play*. In P.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693-774). New York : Wiley.
- Rubin, K. H. (1982). Nonsocial play in preschoolers : Necessarily evil? *Child Development, 53*, 651-657.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CA : Brooke/Cole.
- Thompson, R. (2002). The roots of school readines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In Kauffman Foundation (Ed.). *Set for success :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school readiness based on the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pp.27-40). Kansas City, MO : Ewing Marion Kauffman Foundation.
- Udwin, O. (1983). Imaginative play as an intervention method with institutionalized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53*, 32-39.

2009년 9월 4일 투고, 2010년 2월 25일 수정  
2010년 3월 26일 채택